



# ‘제주는 마약 청정지대’ 이제는 옛말

### 8월까지 75명 검거돼 전년 대비 150% 증가 필로폰이 대부분... 20·30·40대가 80% 이상

마약 청정지대로 일컬어지던 제주에서 마약사범 검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까지 마약류 투약자·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7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30명보다 150%

늘어난 인원이다.

75명을 유형별로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 및 투약이 57명(76%)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가 14명(18.7%), 옥시코돈, 펜타닐 등 마약류 4명(5.3%) 등이다. 나이대별로 보면 40대가 23명(3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21명(28%), 30대 17명(22.7%),

50대 14명(18.7%)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A(50·여)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7월 18일까지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B(59)씨에 이어 경남지역 필로폰 판매책 C(56)씨 등 6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C씨로부터 시가 5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9g을 압수했는데, 이는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어 지난해 12월 7일에는 제주

시내 하천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6월 29일까지 해당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도내 조직폭력배 D(44)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검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초기유에 즐기는 해수욕장 15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 경치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길 건너다 오토바이에 치어

길 건너던 50대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어 숨졌다.

제주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9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보건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길을 건너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한달에 2.5건...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 제주 교육현장 2020년 이후 78건 발생... 상담·심리치료는 500건 육박

교육부가 최근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까지 교권 침해 건수는 총 7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7건, 2021년 40건, 2022년 7월 말 기준 21건이다. 도교육청은 2021

년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것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욕설 등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전국적인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증가했다.

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직 스트레스를 포함

해 상담·심리치료를 받은 경우는 2020년 119건, 2021년 289건, 2022년 7월 말 기준 78건이었다. 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 사례는 2020년 71건, 2021년 48건에 이어 2022년 7월 말 현재 20건에 달한다. 지난해와 올해 교권 전담변호사 공백기가 최대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도내 7개 병·의원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 중인 치료비 지원 건수도 연 10건 내외로 파악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해도 교사들이 참고 견디는 분위기였고 치료 참여도 소극적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알리면서 바뀌고 있다”면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충하지 않으면서 교육활동이 탄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심정지 환자가 ‘구사일생’한 이유

### 행원서 바다에 빠진 60대 경찰·소방 협업 긴급이송 짜이카 동원·실시간 방송 80분 거리 40분만에 주파

제주소방과 자치경찰의 협업으로 심정지 환자가 목숨을 건졌다. 자치경찰의 짜이카 호송과 소방의 실시간 이송정보 공개로 이송시간을 크게 줄인 것이다.

1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17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코난해변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지도하는 한편 119구급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후 A씨는 호흡이 돌아왔지만, 추가 심정지 등의 우려로 병원 이

송이 급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송될 한라병원과의 거리는 35km에 달했고, 퇴근시간대까지 겹치면 서 시간이 1시간2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소방은 자치경찰단과 TBN 제주교통방송에 응급환자 이송정보를 전파했다. 이에 자치경찰은 짜이카와 순찰차를 동원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동선 확보 및 호송에 나섰다. 또 TBN제주교통방송은 실시간으로 이송상황을 청취자에게 전달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A씨는 41분 만에 한라병원에 도착한 뒤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자치경찰단, 제주TBN교통방송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응급환자 소생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악성민원 일삼던 40대 부부 항소 기각

초등생 자녀들을 이용해 악성 민원을 일삼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40대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욱 부장판사)는 15일 보합사기 방지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A(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A씨의 부인 B(48·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송은범기자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금 3300만 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교사와 체육관 관장, 방송국 직원,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이들을 상대로 허위 진정과 민원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 중에는 A씨 부부 때문에 퇴직을 하거나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은범기자

# 추석 끝나자 코로나 확진 500명대로...

11일 287명 → 14일 540명

추석연휴 이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도내에서는 293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3만22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540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는 등 추석연휴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

가 500명대를 넘었다.

지난 14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총 2974명이 발생했다. 전주 대비 1952명 감소한 수치다.

날짜별로 보면 8일 672명, 9일 375명, 10일 323명, 11일 287명, 12일 307명, 13일 470명, 14일 540명 등 추석연휴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도내 격리중인 환자는 2236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 토 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 건축 베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職 員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 그랜드보청기

한가위 고객감사 축제 물가안정 이벤트

1 20만원 상당 삼산배양근 2 15만원 상당 UV전자 습기제거제

※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IFTBA 한국브랜드 파워 100대 선정

중전형 귀속형 보청기 중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들 흔저 전화 주심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심의번호 2007-GN1-26-0155

##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 직접수리 · 당일착용

###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